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30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9. 30.(목)	담당부서	디지털경제통상과
담당과장	이경수 과장(044-203-5630)	담 당 자	이채원 사무관(044-203-5631)

통상교섭본부,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에서 디지털 통상 간담회 개최

- 우리 디지털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및 국제적 디지털 통상 규범 협상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-

□ **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**은 9월 30일(목) 국내 **주요 디지털 기업**들과 **메타버스***에서 만나 **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 청취, 디지털 통상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**하는 간담회를 개최함

* 메타버스(Metaverse) :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초월(meta)세계(verse)를 의미, 5G와 가상기술(VR, AR)을 토대로 현실과 같은 사회·경제·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

○ 여 본부장은 취임 이후, **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**을 위한 **국부창출형 통상 정책 추진**을 위해 **현장 행보***을 이어가고 있으며,

○ 이번 간담회는 **'디지털 통상'** 분야에서 **우리 디지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통상규범 마련** 및 **해외진출 확대 지원**을 위한 **의견 수렴** 차원에서 마련됨

* (8.19) 백신 원자재 기업 ㈜이셀, (8.26) 포스코 파이넥스, (8.31) ASML 코리아, (9.9) 인천항 수출입물류현장 방문 등

< 디지털 통상 간담회 개요 >

◆ **일시/장소** : '21.9.30(목) 14:00 / 제페토(ZEPETO)* 가상 간담회장 등 화상 대화
* 네이버 제트(Z)에서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2억명 이상 가입

◆ **참 석 자** : (정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, 김완기 통상정책국장 등
(기업) 네이버, 더존비즈온, 데이블, 모인,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(가나다順)
(유관기관) KOTRA, 본투글로벌

◆ **논의주제** :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, 한국형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 방향 의견수렴

□ 여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**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(ZEPETO)에 마련된 가상공간**에 각자의 **아바타**로 접속하여 **기업별 부스를 방문**하고 **주요 사업 현황과 해외 진출 계획**을 공유함

○ 이어서 진행된 **간담회**에서 참석기업들은 **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현지 규제와 비관세 무역장벽 등 애로사항을 제기**하며, 통상 당국이 **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**을 요청함

□ **여 본부장**은 모두발언에서 **"디지털 경제 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핵심 가치**이며, **디지털 통상은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"**라고 언급하며,

○ **"디지털 분야**의 **영원한 강자는 없고 신기술의 출현**과 함께 **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림을 주목**해야 하며, 최근 각광받는 **메타버스 플랫폼**이 그 예로 **소셜네트워킹, 기업 및 제품 홍보, 비대면 행사 개최** 등 **다양한 분야에서 활용**되면서 **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"** 면서, 향후 **우리 기업들의 혁신적 역할**에 높은 기대감을 표함

*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'25년 2,800억불(약 315조원)에 이를 전망이며 (Strategy Analytics, '21), 작년 9월 제페토에서 개최된 걸그룹 블랙핑크 팬 사인회에는 4,600만명이 넘는 이용자 참가

□ 참석기업들은 **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**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**국가간 통일된 디지털 규범 마련 필요성을 제기**하며, **국내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**한 **통상 전략 마련** 및 새롭게 등장하는 **디지털 이슈와 규제**에 대한 **범부처 차원의 대응**을 요청함

○ 여 본부장은 이에 대해 **"디지털 무역**의 **새로운 규범**을 만드는 일은

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**우리나라 통상의 핵심 아젠다**"임을 강조하며,

○ "우리나라 디지털 시장은 **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분야가 존재**하는 **독특한 구조**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, 우리 **디지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기회**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**디지털 통상 규범 협상**과 **국내 제도 및 규제 개선**에 힘쓰겠다"고 강조

□ 한편,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**디지털 통상 정책 수립** 및 **국내외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**을 위한 **범부처 추진체계**로서 **'디지털 통상대응반***(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)' **운영을 활성화**하고 **업계와의 소통도 강화**해 나갈 예정임

*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범부처 회의체로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 개선 관련 과제 이행 동향 점검 및 개선방향 정기적 논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이재원 사무관(☎ 044-203-56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